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변화 및 평가방안 연구*

A Study of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and their Assessment Strategies

장윤금 (Yunkeum Chang)**

초 록

대학도서관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대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도서관의 신축 및 리노베이션을 통한 공간구성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인 자료 보존 및 제공 그리고 대학교 구성원의 학습에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자(supporter)의 기능을 넘어서, 공간구성의 변화를 통해 학습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facilitator)의 기능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공간 기능의 변화와는 달리 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리노베이션이나 신축 전후의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혹은 도서관 이용의 변화에 국한되고 있어서,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한 도서관의 학습커먼즈(learning commons)로서의 기능을 평가하는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과 미래의 공간구성 및 평가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University libraries have been attempting to reorganize their space through new building construction and remodeling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university environment. These changes seem to reflect the need for the shift of the university library functions toward the facilitator role of enabling continuous learning and research through space reorganization beyond the traditional supporter role of preserving and supplying library materials and providing learning space and services to university members. Despite all these changes of university library space functions, however, their assessment has been still limited to the library users' satisfaction and usage changes before and after library building renovation or new construction, calling for the need to develop proper measurement tools for evaluating the library functions as learning commons that reflect university vision and goal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end of space reorganization practices in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studies of evaluating its effect, in order to develop tool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pace reorganiza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pace reorganization and assessment strategies.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 공간, 장소로서의 도서관, 리노베이션, 평가전략, 공간 평가 측정 도구
university library, library space, library as place, renovation, assessment strategy, space assessment tool

* 본 논문은 2012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unkeum@sookmy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14년 12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14년 12월 22일
■ 정보관리학회지, 31(4), 229-248, 2014.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22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과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도서관연합, 2013).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학 및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도서관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필요하다. 즉, 도서관의 건물, 시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재영(2012)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이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수의 감소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디지털자료의 증가 및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변화를 감소의 원인이다. 둘째,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기의 도래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준공된 대학도서관의 노후화 문제, 늘어가는 장서를 감당하거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공간의 필요성 문제이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기기 확보이다. 넷째, 이용자의 요구 및 성향변화를 수용할 필요성 제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에 의거한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대부분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 및 멀티

미디어 기기의 활용 공간 확대, 캐럴, 스튜디오 등과 같은 열람공간, 음악감상실, 영화감상공간, 전시장 등을 비롯한 문화적 기능 수행 공간 마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의 형태로 대학도서관의 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공간 활용의 변화가 대학도서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 기능 및 목적과 일치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Bennett(2011)는 도서관 공간의 역사는 독자, 책 그리고 학습의 세 가지 요인을 주축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설명하면서 도서관에서 학습 지원공간(space for lear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도서관의 기능 중 교실 밖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facilitator)의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도서관 공간의 디자인도 '인포메이션커먼즈(information commons)'에서 '학습커먼즈(learning commons)'로 변천하는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Harrop과 Turpin(2013)은 대학도서관의 '비공식적 학습공간(informal learning space)'에 대한 요구와 이를 반영한 리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새로운 공간이 어떻게 대학 교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각의 대학도서관 공간 평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과 미래의 공간구성 및 평가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공간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평가도구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진행된 국내 대학도서관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사례를 통해 도서관 공간의 변화추이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변화

2.1 대학도서관 공간 면적의 변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총 431개관이며 그 중 국공립은 49개관(11.3%), 사립은 236개관(54.8%), 전문은 138개(32%), 각종 학교는 8개관(1.9%)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중 서울 소재 대학도서관이 88개관(20.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기지역으로 80개관(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대학도서관 수가 적은 지역은 제주도와 세종으로 각각 4개관(0.9%)이며 울산이 5개관(1.2%)으로 다음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서관연감, 2013).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자료(2013)에 따르면 조사대상 269개관 4년제 대학도서관 건물의 총 연면적은 2,324,146㎡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상위 20위권과 하위 20위권 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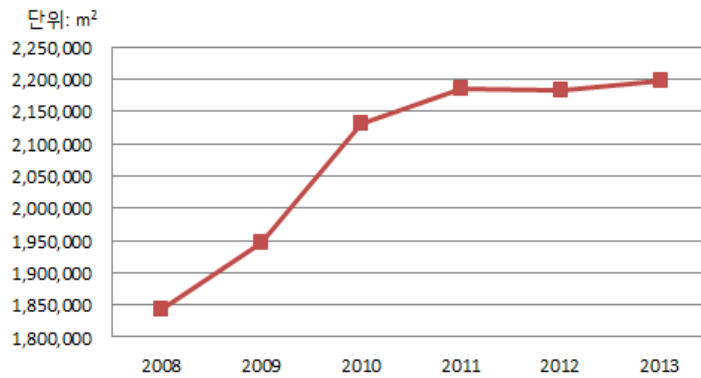
건물연면적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 대학의 평균 연면적이 전체 대학도서관 면적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269개 대학 중 대학도서관 건물 연면적 상위 20%인 대학이 수적으로는 1/3에 불과하나, 면적은 1/3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위권 대학의 1개관 당 평균 면적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러한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수도권에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으며(서울, 경기 39%), 4년제 대학도서관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많은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매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2010년 사이에 상승곡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연세대도서관(2008), 성균관대도서관(2009), 중앙대도서관(2009) 등의 대형도서관의 신축 혹은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명숙(2003)은 1916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도서관통계조사를 분석하면서 특히 대학도서

〈표 1〉 도서관 건물 연면적 상·하위 20위권 대학도서관

구분	건물 연면적(㎡)	1개관당 평균(㎡)
4년제 대학도서관(269)	2,324,146	8,640
상위 20위권	663,232	33,162
하위 20위권	2,582	129

출처: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그림 1〉 연도별 대학도서관 면적 변화(2008-2013)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통계자료 2008-2013

관의 급격한 증가는 1990년 이후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면적증가가 전체 한국도서관의 면적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2 대학도서관 공간 유형의 변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도서관은 장서 및 학생수 증가, 정보환경의 변화, 대학 구성원의 정보요구 등을 반영한 대학도서관 공간의 목적 및 유형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Bailin(2011)은 최근 도서관 공간 형태의 변화를 '공간/장소로서의 도서관(library as space and place)' 개념에서 '제3의 장소(third place)'로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ailin은 그의 연구에서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분하면서, 공간(space)의 경우는 도서관 각각의 기능별 공간을, 장소(place)는 도서관의 물리적인 형태로서 총체적인 도서관을 지칭하였다. 즉, 단순한 물리적 장소 혹은 열람실 기능의 도서관 공간을 넘어 시각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설계와 유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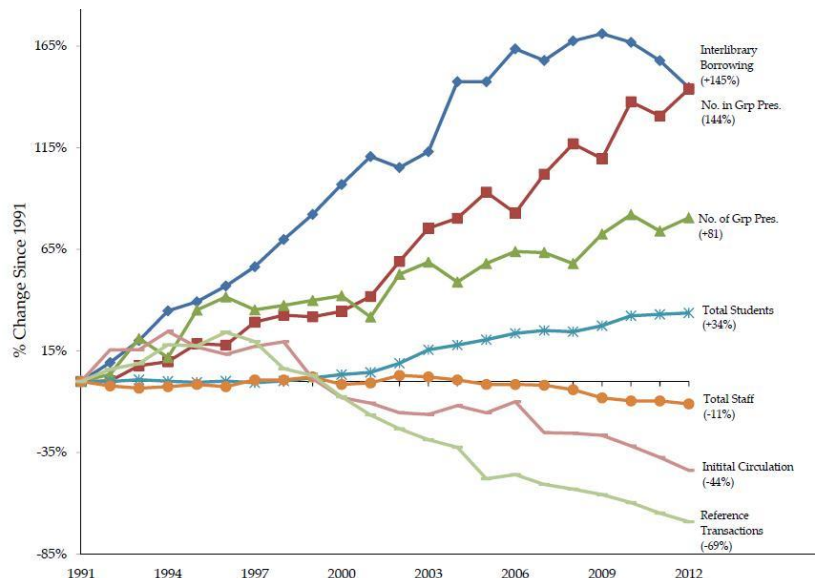
하면서도 변경이 가능한 학습공간, 정보/학습 커먼즈 도입, 연장 개관시간, 도서관내 카페 설치 그리고 디지털정보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과 장소로서의 도서관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넘어 21세기 대학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3의 장소'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가 수행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이 그동안은 '대학의 심장'으로 인식되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며,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Oakleaf, 2010). 또한 미국 연구도서관협의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의 통계조사(2013)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연구도서관들의 주요 서비스 변화를 보면 대출 수는

지속적이면서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44%), 참고서비스 역시 비슷한 감소 현상을 보이는 반면(-69%), 상호대차는 지속적으로 상승(+145%)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즉 대학도서관이 이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itecki(2011)는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던 책, 정기간행물, 필름, 아카이브자료 중심에서 현재는 점차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와 서비스 필요성을 반영하는 학습과 협업 공간 구성으로의 변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Bennett(2009)는 대학도서관 공간 유형에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첫째, ‘독자 중심의 패러다임’(reader-centered paradigm)으로 1920년대에 예일대학의

‘Sterling Memorial Library’를 건축할 당시 교회의 고딕양식을 반영한 조용한 독서 공간을 지향한 형태이며 초기의 대학도서관 공간을 이 부류로 규정하였다. 둘째, ‘도서 중심의 패러다임’(book-centered paradigm)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서관의 장서를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 서가를 확장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이후 1990년대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학도서관 건물의 확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후 이러한 예측을 넘어 대학도서관은 셋째, ‘학습중심의 패러다임’(learning-centered paradigm)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학습중심의 패러다임’은 처음의 ‘독자 중심의 패러다임’과 유사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해결능력, 의도학습(intentional learning) 디자인과 같은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하고 전환 장치의 역할을



〈그림 2〉 미국연구도서관 1991-2012 서비스 변화추이

출처: ARL 통계조사(2013)

강조하는 유형으로 대별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에서 그룹학습 공간, 카페, 컴퓨터랩을 단순히 이러한 '의도 학습'의 공간으로 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학습중심 공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도서관 정책과 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Matthews와 Walton(2014)은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설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정책을 도서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 구조 안에서의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Nitecki(2011) 역시 대학도서관이 이제는 지식의 보존자 역할에서 의도적학습자(intentional learner)를 지원하는 조력자(facilitator) 역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Freeman(2005)은 역시 정보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접근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대학도서관 공간을 협업 학습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3 국내 대학도서관의 공간 신축 및 리노베이션 현황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대학들이 개관 이후 20~30년이 지난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 및 환경의 리노베이션, 증축 혹은 신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재영(2012)은 2003~2011년까지 진행된 국내 대학도서관 신축 및 리노베이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표 2>는 정재영의

2012년 연구에 나타난 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한국도서관연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자료 확인 및 각각의 대학도서관 사서와의 전화 및 이메일 확인 작업을 통해 수정·보완된 것이다. 이 중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이화여대도서관,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의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의 경우 예산액이 대학의 전체 예산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예산액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로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대학조직기구에 서의 명칭은 '연세대 학술정보원'으로 크게 3개의 도서관 즉 기존의 중앙도서관, 2008년 신축된 연세·삼성학술정보관 그리고 2013년 개관된 송도 국제캠퍼스의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연세·삼성학술정보관(<표 2>의 14번)은 2008년 기존 중앙도서관 건물과 연결된 '지하 3층+지상 7층'의 도서관을 신축함으로써 전통적인 도서관 시설에 최첨단 IT 시설 및 멀티미디어교육실 등의 멀티미디어 복합공간, 휴식, 미팅,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U-lounge 복합문화공간, 체험코너, 그룹스터디룸, 프레젠테이션룸, 협업부스와 세미나룸을 포함하는 인포메이션 커먼즈를 포함하는 새로운 공간구성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에 중앙도서관 리노베이션(<표 2>의 25번) 이후 2008년에 신축된 연세·삼성학술정보관의 층수를 중앙도서관(서울) 층수에 맞추어 '지하 2층 + 지상 8층'으로 재조정하여 명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16번)의 경우 2009년 신축 개관하였는데 멀티미디어시설, 영상스튜디오, 포토스튜디오, 매체편집실, 미디어

자료실, 프레젠테이션룸, 시네마룸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홍보관과 프리커뮤니티존 등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시설을 설비하였다.

이외에도 부분적인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진 이유로 <표 3>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성신여대 도서관의 경우 2013년에 도서관 건물 중 2층을 창의적인 열람공간의 모형으로 리노베이션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리노베이션에 소요된 총 예산액은 1억원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열람공간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리노베이션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이 완공 예정에 있다. 관정도서관은 2013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 서울대 중앙도서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약 2만 7,320㎡) 규모의 도서관 신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공간구성' 과정 발표자료(2014)에 의하면 이러한 신축도서관 구축의 목적은 1) 학습 및 서고 공간의 부족 해소, 2) 공동학습실 및 협업공간 제공, 3) 이용자 맞춤형 공간, faculty lounge,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인포메이션커먼즈(Information Commons) 공간 조성, 그리고 4) 최첨단 IT 시스템 공간을 조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역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7,000㎡) 도서관 신축을 진행 중이며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그룹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시설을 목적으로 2015년 개관 예정이다.

이러한 지난 10여 년 간의 국내 대학도서관

의 리노베이션 혹은 증축이나 신축한 사례 혹은 현재 리노베이션이나 신축을 계획 중인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공간 변화는 인포메이션커먼즈 공간의 도입과 공동 학습공간, 협업공간, 라운지 마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도서관들의 공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 도서관 공간의 활용이 대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 혹은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나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Oakleaf(2010)는 대학도서관의 주요 사명은 대학의 교육비전과 목표를 수립에 중점을 둔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인 중 도서관 공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관 공간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학의 교육 목표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ippincott(2013)는 도서관의 리노베이션이나 신축에 앞서 대학도서관의 주요 목적인 학습공간(learning space) 구성을 위한 도구(Toolkit)를 마련해야 하며 전체적인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구성이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어떠한 리노베이션 요소가 대학이 지향하는 주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등의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표 2〉 2003-2014년 대학도서관 신축, 증축 및 리노베이션 현황*

번호	년도	도서관명(개관년도)	면적(m ²)	층수	예산(억)	기타
1	2003	광주대도서관	17,269	지하1층 지상6층	100	신축
2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	24,420	지하1층 지상6층	496	신축
3		조선대도서관	18,408	지상7층	180	신축
4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25,185	지하2층 지상6층	450	신축
5		한성대 학술정보관	11,814	지상6층	108	신축
6		경성대도서관	11,384	15층중 4~9층사용	300	신축
7		동국대도서관	13,500	지하4층 지상4층	160	신축
8	2004	고려대 중앙도서관신관	14,582	지상4층	40	리노베이션
9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	17,340	지하1층 지상5층	100	리노베이션
10	2005	숙명여대도서관	15,363	중앙(지하1층+지상6층) +열람실(지하2층)	160	리노베이션(2005~6) +증축(2005)
11		영남대도서관	24,003	지하1층 지상6층	200	리노베이션
12	2007	고려대 CDL 학술정보관	23,382	지하1층 지상4층	440	신축
13		동서대 민석도서관	14,345	지하2층 지상6층	300	신축
14	2008	(연세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서울)	33,428	지하3층+지상7층 (현)지하2층+지상8층**	620	신축
15	2009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16,483	지상5층	-	리노베이션(2009) +증축(2011)
16		성균관대 삼성학술정보관 (자연과학캠퍼스내)	23,740	지하2층 지상7층	600	신축
17		중앙대도서관	14,000	지하1층 지상4층	150	리노베이션 +증축
18	2010	명지대도서관	27,800	지하3층 지상4층	450	신축
19		가천대도서관	2,600	지하1층 지상2층	24	증축
20		성결대 학술정보관	13,167	지하1층 지상6층	220	신축
21		덕성여대도서관	8,580	지상3층	30	리노베이션

번호	년도	도서관명(개관년도)	면적(m ²)	층수	예산(억)	기타
22	2011	전주대도서관	9,600	지하2층 지상4층	340	신축
23	2012	원광대도서관	10,410	지하1층 지상7층	130	신축
24		창원대도서관	15,603	지하1층 지상5층	195	신축
25		(연세대) 중앙도서관(서울)	19,359	지하1층+지상6층	100	리노베이션
25	2013	이화여대도서관	22,557	지하1층 지상5층	-	리노베이션 (지하1층+1층)
26		연세대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송도)	12,546	지하1층 지상7층	-	신축
27	2014	부산대도서관 (제2도서관)	35,855	지상4층	38	리노베이션
28		전북대도서관	24,492	지하2층 지상4층	340	신축

* 정재영(2012) 연구의 <표 2>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연세대는 2012년에 중앙도서관 리노베이션 이후 2008년 신축된 연세·삼성학술정보관(서울)의 지하3층+지상7층의 층수를 중앙도서관 층수에 맞추어 지하2층+지상8층으로 재조정하여 명칭하고 있음.

3. 대학도서관 공간평가 연구

3.1 대학도서관 공간평가 항목

국내 대학도서관의 평가지표 중 공간에 대한 공통적인 항목은 '도서관 면적'과 '좌석 수'이다. 김기영 외(2014)의 「대학도서관평가 표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총 7개 영역의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중 공간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이 두 가지 항목인 '도서관 공간(이용 면적)'과 '좌석 수'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공간에 대한 평가지표는 공공도서관의 평가지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지표에 나타난 공간평가에 해당되는 영역은

'시설' 영역으로 '도서관 자료실 면적(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비율'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의 두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재황, 차성중, 2012).

미국대학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미국 연구도서관 협회(ARL, Association for Research Libraries)에서 개발한 LibQUAL+ 평가 도구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LibQUAL+를 활용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심원식과 이은철(2013)이 ARL의 LibQUAL+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LibQUAL+ 평가 모형을 살펴보면 '도서관 공간'에 대한 평가 영역이 '장소로서의 도서관(Library as Place)'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역 안에 총 5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공부와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도서관 공간', '개인적인 업무수행에 적합한 조용한 공간', '편안하고 이용자를 반기는 장소', '공부, 학습, 연구를 위한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 '그룹학습 및 그룹공부를 위한 공유 공간'이 이에 해당되며 「대학도서관평가 지표」 혹은 「공공도서관 평가지표」보다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평가 기준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차이에 중점을 둔 서비스평가 모형이며 대학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분석, 목표 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이용자 만족도 혹은 이용빈도의 변화

국내 대학도서관의 리노베이션 혹은 증축/신축과 관련된 평가 연구는 주로 도서관 리노베이션 전후의 이용자 만족도 혹은 이용빈도 변화 연구이며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서베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혹은 심층면접이 대부분이다. 남영준 외(2009)는 C대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전·후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도서관 리노베이션 이후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승한 결과를 통해 이는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한 열람실의 확대(과거의 2배)로 인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리노베이션 이후 설문 응답자의 경우 방문횟수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유재욱(2012)의 연구에서도 덕성여자대학교도서관 리노베이션 이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만족도가 8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이후 도서관 이용률이 리노베이션 전 해의 동월에 비해 52.2%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도서관출입 빈도수는 증가하였으나 도서대출 권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전자책이나 웹DB,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도서대출 등을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영만 외(2010)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서비스 혜택에 대한 인식과 대학도서관 서비스 가치 평가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의 도서관의 방문 이용이 도서대출, 해외 논문 이용, 참고 서비스, 이용교육에 대한 WTP(Willingness to Pa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영(2012)은 국내 4개 대학도서관의 신축 및 리노베이션 전후의 이용률 변화를 조사한 결과 최소 20.49%에서 최대 99.46%의 이용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서관 공간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노베이션 혹은 증축/신축을 통한 도서관 이용빈도 및 만족도의 증가는 향후 도서관의 자료 및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공간확보나 공간개선으로 인한 만족도 혹은 이용빈도 증가가 장기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정재영, 2012; Montgomery, 2013; Lippincott & Duckett, 2013).

3.3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분석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이용자들의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공간을 계획하거나 재배치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주요 고객인 학생들의 의견이 도서관 공간 디자인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용재 외(2012)는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목적, 도서관 공간문제, 출입과 로비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학문활동에 대한 중심 공간으로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ailin(2011)의 연구는 호주의 New South Wales 대학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의 이용빈도와 어떠한 공간을 선호하는지, 왜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빈도는 응답자의 35%가 매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인 학습공간(27%)뿐 아니라 라운지 혹은 그룹스터디룸과 같은 협업 공간(68%)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5% 이상이 보다 자유로운 라운지와 같은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향후 도서관 공간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Bryant 외(2009)의 연구 또한 유사한 연구 결과를 협업공간의 선호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영국의 Loughborough 대학의 도서관 이용자 요구 분석을 위해 관찰 방법을 사용한 결과, 대학도서관 내의 복합 그룹공간인 Open³ 공간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

으며 이러한 요구분석에 대한 결과가 도서관 공간구성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4 이용자의 대학도서관 이용 및 학습 행태 분석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이용자를 이용하여 도서관 공간 이용행태 혹은 학습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개인 학습공간이나 협업 공간 디자인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야 도서관 공간구성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Hobb과 Klare(2010)는 Wesleyan 대학의 새로운 학습공간 디자인을 위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설문 혹은 인터뷰 방식과는 차별화된 민족지학적 연구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사용하였다. 즉 가장 공부하고 싶은 장소를 사진을 찍거나(photo elicitation), 도서관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architectural/design drawings), 혹은 캠퍼스지도(campus maps)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실 이외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학습하는지를 추적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용자의 학습공간에 대한 이용행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용자의 학습행태에 대한 이해를 대학도서관의 공간디자인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Harrop과 Trupin(2013)은 대학에서 학습자의 '비공식적 학습공간(informal learning spac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물과 공간의 구성이 학생들의 Informal 한 학습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건축 형태가 학습

동기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언제나 접근 가능하면서도 자유로운 학습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eClercq와 Cranz(2014)는 버클리대학교의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이미 구축된 도서관 시설을 이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학습에 이용하는지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공간구성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는 Post-Occupancy Evaluation(POC) 방식을 제안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개인 학습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번 방문에서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학생이 5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서관 학습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시간 이상을 한자리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도서관의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이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학습 자세)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행태 조사 결과를 도서관 공간 및 가구, 시설 배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Hunter와 Cox(2014)의 연구는 영국의 Sheffield 대학교 학생들의 커피숍 혹은 인포메이션커먼즈 카페 등의 'Informal Learning Spaces'에서의 학습행태를 조사함으로써 강의실 혹은 전통적인 도서관과 같은 'formal learning space'뿐 아니라 학생들이 'informal learning space'에서의 장소를 협업을 위한 그룹학습이나 개인 학습 공간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구성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자유스러운 학습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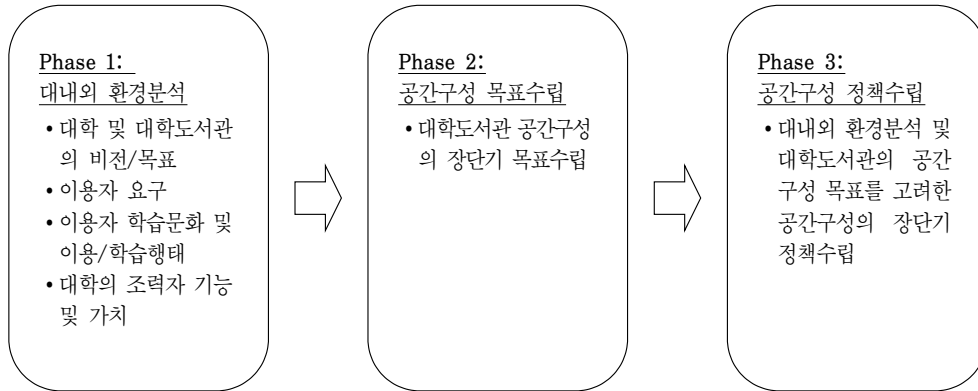
4.1 공간구성 정책수립

과거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구성이 이용자의 수월한 접근성, 개인열람석 확보율(열람좌석 수), 혹은 대학의 구성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 확보율(도서관 면적)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의 지원자(supporter)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대학의 조력자(facilitator)로서 이용자의 요구와 대학의 목표를 반영한 공간구성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대학도서관 공간구성과 관련된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학도서관 공간 평가 정책수립을 위한 절차를 제안하였다(〈그림 3〉 참조).

첫째, 대학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을 반영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대학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조사(Needs Assessment), 학습문화 및 이용/학습행태를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조사에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 및 가치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즉 '학습공간(learning space)', '의도적 학습자 지원공간(intended learner support space)', '사회적공간(social space)' 등의 기능을 고려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설정에는 대내외 환경분석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대내외 환경분석 및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목표를 기초자료로 하며 대학도서관 공간



〈그림 3〉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정책수립 절차

구성의 장단기 정책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책수립은 공간구성을 위한 리노베이션, 신축 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2 공간 평가 측정 도구 개발

현재 국내의 경우 대학도서관 공간 평가에 대한 측정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면적’ 및 ‘좌석 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한 도서관의 면적 혹은 좌석수와 비교함으로써 도서관의 공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국가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대학도서관의 경우 미국 연구도서관협회에서 개발한 도서관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측정도구인 LibQUAL+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문헌조사를 종합·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대학에서의 학습공간을 강의실 혹은 컴퓨터 랩 등으로 제한하여 인식했던 반면, 현재는 캠퍼스 전역 혹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대된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Webb 외, 2008; Bennett, 2011; Hunter & Cox, 2013). 즉 대학도서관의 경우 과거에는 대학도서관 공간을 도서관의 장서, 아카이브 보존 등에 중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umpton & Crowe, 2008; Montgomery, 2012).

이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공간 측정 도구 또한 과거의 평가지표 통계자료 혹은 도서관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를 넘어 이용자의 공간이용 행태, 학습행태를 통한 평가측정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평가방법도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이용행태 혹은 학습 행태에 대한 관찰, 인류학적 조사방법(ethnographic method), 포커스그룹인터뷰, 심층인터뷰, Post-Occupancy Evaluation(POC) 방식 등의 다양한 측정도구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혹은 국내외 대학도서관 공간 측정 도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공간구성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를 제시하였다(〈표 3〉 참조).

우선 평가목적 및 대상에 따라 1) 도서관 이용자의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2) 도서관 직원의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전략적 적합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또한 각각의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대한 평가 영역에 주요 항목을 구분하고 각 측정 항목 영역 안에 세부 평가 항목을 구분한다. 단 〈표 3〉에 열거한 세부 평가항목은 선행연구조사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유사한 개념이나 항목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평가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측정도구가 아니라 공간구성 평가 측정도구의 예로 포함한 것이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의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① 전체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② 도서관의 본원적인 목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 ③ 내부적, 외부적인 접근성, ④ 내부자재/시설, ⑤ 학습공간, ⑥ 학습자 지원 공간, ⑦ 사회적 공간, 그 외의 ⑧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에 대한 개방형질문 항목의 총 8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우선 ① 전체 공간에 대한 만족도 평가항목은 세부 항목으로, 도서관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층별 만족도, 혹은 전체적인 열람공간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될 수 있다. ② 본원적 목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 항목은 도서관 고유의 공간인 대출자료실(데스크), 참고자료실(데스크)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③ 내·외부 접근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도서관 건물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혹은 도서관 내부의 대출반납, 참고서비스 데스크 등의 접근의 편리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내부자재 및 시설에 대한 평가항목은 도서관의 총 좌석 수, 서가 위치, 원형책상, 그룹용 사각책상, 소파, 의자, 컴퓨터, 아울렛 등의 기자재에 대한 편의성, wireless 구축 환경,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림, 커튼 등의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세부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학습공간에 대한 평가항목은 크게 개인학습공간과 그룹학습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자유열람실, 스터디룸, 개인 캐럴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되었다. ⑥ 학습자 지원 공간은 학습공간 항목과는 별도로 대학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대학의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에 중점을 둔 평가항목으로 대학교육 지원 공간, 협업 학습 지원 공간, 이용자-직원의 교류 및 지원 공간, 정규 수업의 지원 공간, 전문교육 활성화 공간으로 세분될 수 있다. ⑦ 사회적 공간은 최근 대학도서관의 기능이 점차 이용자들의 사회적 교류 및 협업의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 카페 라운지, 인포메이션 커먼즈, 복합문화공간 등으로의 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그 외의 ⑧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에 대한 개방형 평가항목은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의 공간 요구, 공간 사용 목적 및 구성/배치에 대한 개방형 평가항목이다. 이러한 평가항목은 도서관 이용자의 공간구성에 대한 신축 혹은 리노베이션 이후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으나 신축 혹은 리노베이션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용자의 도서관 공간에 대한 필요성, 이용행태 등의 평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이다.

〈표 3〉 대학도서관 공간 평가 측정도구

평가목적 및 대상	평가항목	세부항목	연구자
도서관 이용자의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전체공간	전체공간구성, 층별공간구성, 전체적 열람공간구성	남영준 외(2009) 곽동철·윤정옥(2011)
	본원적 목적 공간	대출자료실, 참고자료실	남영준 외(2009)
	내·외부 접근성	도서관 접근성 대출반납, 서비스 접근	Nitecki(2011) Edgar(2006)-LibQUAL+ 남영준 외(2009)
	내부자재/시설	좌석수 서가 및 원형책상, 사각책상(그룹용), 소파, 의자 등의 기자재, 편의시설, 조명, 컴퓨터, 아울렛, Wireless, 그림, 커튼 등의 인테리어	김기영 외(2014) 남영준 외(2009) Nitecki(2011) Crumpton & Crowe(2009)
	학습 공간	자유열람실, 스터디 룸 개인학습공간, 그룹학습공간	남영준 외(2009) Edgar(2006)-LibQUAL+ Montgomery(2012) Bryant 외(2009) 곽동철·윤정옥(2011)
	학습자 지원 공간	대학교육 지원 공간 협업 학습 지원공간 이용자-직원의 교류, 지원 공간 정규수업의 지원 공간 전문교육 활성화 공간	Nitecki(2011) Montgomery(2012) Matthews 외(2011) Oakleaf(2011)
	사회적 공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카페 라운지, 인포메이션커먼즈, 복합문화공간	Edgar(2006)-LibQUAL+ Bryant 외(2009) Montgomery(2012) Harrop & Turpin(2013)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는?	이용자의 공간 필요성 이용자의 공간 활용성	DeClercq & Cranz(2014) Hobbs & Klare(2009)
도서관 직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본원적 목적 공간	자료실, 서가공간, 보존서고, 교육실, 관리·업무 공간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는?		
공간구성의 전략적 적합성	공간구성과 대학의 비전/ 목표와의 적합성		Bennett(2011)
	공간구성과 대학도서관의 비전/목표와의 적합성	목적(도서관 본원적 목적, 이용자 만족도, 직원 만족도)과의 적합성	Bennett(2011)

둘째, '도서관 직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① 본원적 목적 공간에 대한 평가와 ②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본원적 목적 공간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 직원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자료실, 서가공간,

보존서고, 교육실, 관리·업무 공간 등의 공간 구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또한 ②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에 대한 평가 항목은 도서관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유와 목적, 공간구성 및 배치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한다.

셋째, '공간구성의 전략적 적합성'은 ① 공간구성과 대학의 비전/목표와의 적합성과 ② 공간구성과 대학도서관의 비전/목표와의 적합성의 두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즉 대학도서관의 공간 평가 측정에 대학도서관이 속해 있는 대학의 비전과 목표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한 공간 평가 측정에 대학도서관의 비전 및 목표가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도서관 공간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은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서관 직원의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전략적 적합성의 세 가지 영역을 반영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측정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미래의 공간구성 및 평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공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도서관 공간 평가에 대한 방법과 변화추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사례를 조사

함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가 다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인 열람공간이나 자료의 보존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대학도서관은 최첨단 IT 시설, 협업학습공간, 복합문화공간, 카페 라운지, 그룹스터디룸, 세미나룸 등의 인포메이션커먼즈 공간 혹은 러닝 커먼즈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수도권에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으며(서울, 경기 39%), 4년제 대학도서관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많은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이 책, 정기간행물, 필름, 아카이브 보존 등의 보존 공간의 기능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와 서비스 필요성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학습 및 문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리노베이션 혹은 증축/신축과 관련된 평가 연구는 주로 도서관 리노베이션 전·후의 이용자 만족도 혹은 이용빈도 변화 연구이며,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서베이, 포커스그룹 인터뷰 혹은 심층면접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분석, 이용자의 대학도서관 이용 및 학습행태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요구, 이용행태 및 학습행태를 반영한 도서관 공간 구성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공간이용행태 관찰, 인류학적 조사방법(ethnographic method),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면접, Post-Occupancy Evaluation(POC)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공간구성 정책수립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첫째, 대학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을 반영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장단기 목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내외 환경분석 및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목표를 기초자료로 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장단기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 및 국내의 대학도서관 공간 측정 도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구성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우선 평가목적 및 대상에 따라 1) 도서관 이용자의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2) 도서관 직원의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3)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전략적 적합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의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① 전체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② 도서관의 본원적인 목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 ③ 내부적, 외부적인 접근성, ④

내부자재/시설, ⑤ 학습공간, ⑥ 학습자 지원 공간, ⑦ 사회적 공간, 그 외의, ⑧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에 대한 개방형 질문 항목의 총 8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도서관 직원의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① 본원적 목적 공간에 대한 평가와 ② 필요한 공간과 그 이유/목적 및 공간구성/배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공간구성의 전략적 적합성'은 ① 공간구성과 대학의 비전/목표와의 적합성과 ② 공간구성과 대학도서관의 비전/목표와의 적합성의 두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반영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이 정보공유, 협업학습,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과 더불어 대학교 구성원의 학습과 연구를 도와주고 대학 교유의 교육 목표를 지원하는 조력자의 기능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학도서관의 본원적인 목적 및 대학의 비전/목표를 반영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다양하고 다각적인 도서관 공간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영만, 심원식, 정혜경, 표순희, 황욱 (2014).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혜택에 대한 인식이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29-343.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329>

- 김기영, 최상기, 김주섭, 안혜림 (2014). 대학도서관평가 표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03-33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303>
-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 (2009).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205-222.
- 심원식, 이은철 (2013). LibQUAL+를 활용한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측정 사례 조사. 정보관리학회지, 30(2), 245-268.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2.245>
- 유재욱 (2012).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관한 소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15-436.
-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133-150.
- 전명숙 (2003). 21세기의 도서관 정보센터 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92-301.
- 정재영 (2012). 대학도서관 공간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333-352.
- 주정준, 김치환, 정의용 (2007).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3(7), 107-116.
- 최재황, 차성중 (2012). 전국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2011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8.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2013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연구보고 CR 2013-16.
Retrieved from <http://www.rinfo.kr.jsp/statistics/chartView-2.jsp?NUM=6&OWASP>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Retrieved from <http://www.rinfo.kr/stat/statInfo.do?sub=01&OWASP>
- 한국도서관협회 (1961-2013). 한국도서관 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ppleton, L., & Stevenson, V. (2011). Developing learning landscapes: academic libraries driving organisational change. Reference Services Review, 39(3), 343-361.
- Bailin, K. (2011). Changes in academic library space: A case study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42(4), 342-359.
- Bennett, S. (2009). Libraries and learning: A history of paradigm change. Libraries and the Academy, 9(2), 181-197.
- Bryant, J., Matthews, G., & Walton, G. (2009). Academic libraries and social and learning space: A case study of Loughborough University library, UK.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1(1), 7-18.
- Bryant, J. (2009). What are students doing in our library? Ethnography as a method of exploring library user behaviour.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33(103), 3-9.
- Cottrell, J. R. (2011). What are we doing here, anyway?: Trying academic library goals to institutional mission. C&RL News, 516-520.
- Crumpton, M., & Crowe, Kathryn (2009). Using evidence for library space planning. Proceedings of

- the 2008 Library Assessment Conference: Building effective, sustainable, practical assessment. 51-64.
- DeClercq, C. P., & Cranz, G. (2014). Moving beyond seating-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dentified in a POE of a campus librar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articles in press. (preprint)
- Harrpo, D., & Turpin, B. (2013). A study exploring learners' informal learning space behaviors, attitudes, and preferences.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9, 58-77.
- Hobbs, K., & Klare, D. (2010). User driven design: Using ethnographic techniques to plan student study space.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27, 347-363.
- Hunter, J., & Cox, A. (2014). Learning over tea! Studying in informal learning spaces. *New Library World*, 115(1/2), 34-50.
- Lippincott, J. K. (2013) Library space assessment: Focusing on learning. *Research Library Issues*. RLI284.
- Matthews, K., Andrews, V., & Adams, P. (2011). Social learning spaces and student engagement.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0(2), 105-120.
- Montgomery, S. E. (2014). Library space assessment: User learning behaviors in the librar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0, 70-75.
- Montgomery, S. E. (2011). Quantitative vs. Qualitative: Do different research methods give us consistent information about our users and their library space needs?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35(11), 73-86.
- Nitecki, D. A. (2011). Space assessment as a venue for defining the academic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81(1), 27-59.
- Oakleaf, M. (2011). Are they learning? Are we? Learning outcomes and the academic. library. *Library Quarterly*, 81(1), 61-82.
- Oakleaf, M. (2010). The value of academic libraries: A comprehensive research review and report.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 Webb, K. M., Schaller, M. A., & Hunley, S. A. (2008). Measuring library space use and preferences: Charting a path toward increased engagement. *Libraries and the Academy*, 8(4), 407-422.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i, Jae Hwang, & Cha, SungJong (2012). Analysis of 2011 Korean public libraries' management

-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8.
- Chun, Myungsook (2003). Library architecture in 21st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292-301.
- Chung, JaeYoung (2012). A study on utilization method of spaces on th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33-352.
- Ju, JungJun, Kim, ChiHwan, & Jeong, EuiYong (2007). A study on the changes in spatial composition of university library before and after remodeling.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23(7), 107-116.
- Ko, YoungMan, Shim, Wonsik, Chung, HyeKyung, Pyo, SoonHee, & Hwang, Uk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users' use patterns and their recognition of service benefits on the value assessments of university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329-343.
- Kim, Giyeong, Choi, SangKi, Kim, JuSup, & Ahn, Hyerim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ndard indicators for college & university libraries'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303-334.
- Korea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3). 2013 University library statistical analysis kit. Research Reports. CR 2013-16.
Retrieved from <http://www.rinfo.kr.jsp/statistics/chartView-2.jsp?NUM=6&OWASP>
Retrieved from <http://www.rinfo.kr/stat/statInfo.do?sub=01&OWASP>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1-2013). *Korea Library Almanac*.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YongJae, Park, KyungSeok, & Kim, BoIn (2012).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of university library focused on P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2), 133-150.
- Nam, YoungJoon, Moon, JungHyun,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research about spacial composition before and after remodeling university library focused on C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205-222.
- Shim, Wonsik, & Lee, EunChul (2013). Service quality assessment of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using LibQUAL+: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45-268.
- Yoo, JaeOk (2012). A review of the remodeling project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15-436.